

2010.11.12
www.womenlink.or.kr

200
회

함께가는 여성

기획 드디어, 200!

민우회

2010 차별금지법, 이렇게 잘해보자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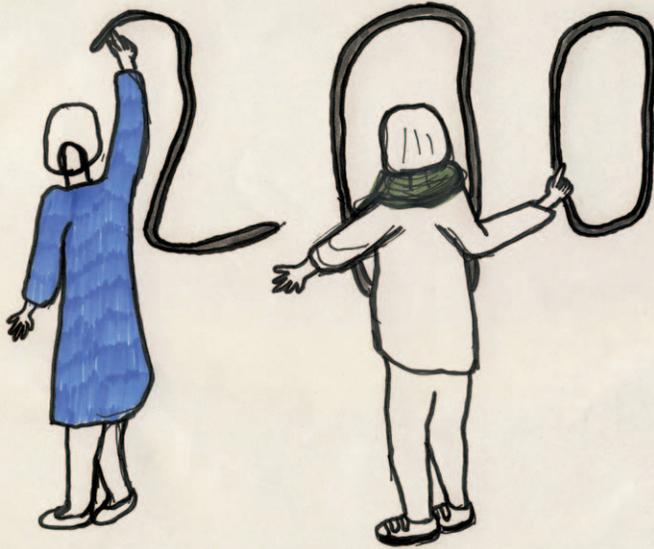
“한 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얹어요!”

홍익인간 뜻으로, [명랑 성생활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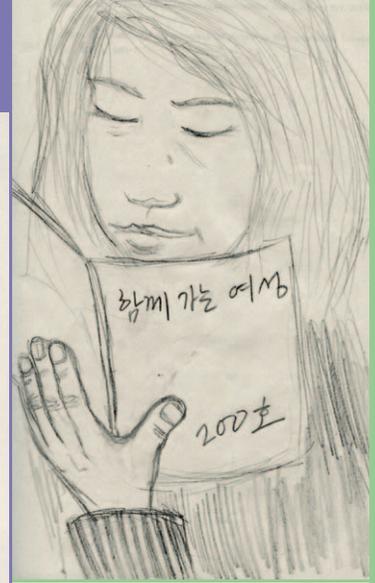
민우칼럼 창 (기쁘게) 아듀, 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호



200호를 맞은 <함께가는 여성>, <함께가는 여성>과 쪽 '함께' 가고 싶어요.

각 호에 담겨진 색깔 다른 이야기들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려보았습니다.



함께가는 여성

2010.11.12



02 민우ing

2010 차별금지법, 이렇게 잘해보자는 거지!
“한 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엮어요”
홍익인간 뜻으로, [명랑 여성활택서]

11 민우스케치

13 생생한 시각

1895일의 긴 여정, 기룡전자
위기의 경제학, 금융위기는 여성의 위기?

19 기획

드디어, 200!

- 우리 함여가 달라졌어요!
- 옛날 함여를 읽다
- 시작과 지금이 만나 이후를 고민하다
- 애독회원이 본 <함여가는 여성>



30 문화산책

마음을 여는 인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쁘게) 아듀, 민우회!

32 민우칼럼 창

34 마포나루에서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낯설게

36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매일, 낯선 길 위에 서다

38 생협이야기

여성운동상 상금으로 시작한 암소수내사업

40 9개의 시선

지역의 아동안전망을 다시본다

42 모람풍경

집에서 나갈 공리하기

44 모람풍경II

민우회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45 지부소식

47 독자마당

48 참여 200호 기념 퀴즈



* '함여가는 여성'의 필자명은 실명과 필명을 함께 씁니다. 단, 필명만 있는 것은 필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 차별금지법, 이렇게 잘해보자는 거지!

선백미록(신기루) ●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회원(정준)팀



큰 언니의 이름은 영희. 한국여성의 태반이 그런 이름을 가진 시절 언니는 돈 벌러 서울 갔다가 최 모 씨를 만났고, 그와의 결혼을 원했다. 그는 경상도 싸나이. 아빠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불가능한 일라며 무조건 반대했다. 이 일로 언니는 천하의 '역적년'이 돼 몇 년 동안 집에 자유롭게 오지 못했다. 아빠가 언니에게 한 말과 행동, 형부가 아빠한테 겪은 일들은 형부라는 인간에 붙어 있는 어떤 사실 - 경상도 출신 - 때문에 생긴 차별이었다.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을 안 후 학교에 안 보내고, 교과서를 모두 태우고 머리를 잘라버린 내 친구 H의 아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 종교를 갖고 있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던 친구 J의 불편했던 고등학교 시절도 어떤 고단한 인생을 사는 특별한 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털어서 '차별' 경험 하나쯤 없는 인생이 없듯이, 나이, 학력, 병력, 성별, 성적지향,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국가 등등 차별의 사유 또한 알고 보면 '나'라는 인간에 붙어있는 어떤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국가와 사회의 인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우회는 올해 반차별공동행동(이하 반차공)이라는 연대들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연속쟁점포럼에서 ‘모욕감, 혐오범죄, 차별과 표현의 자유, 복합차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다루고 마지막 종합토론까지 6차의 여정을 마쳤다. 반차공은 2010년 판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상상한 끝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01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은 ①사회적 담론효과이자 ②감정과 욕망으로 구성되고 인지되며 ③복합적이고 교차하는 인과관계¹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차별을 구성하는 사회적 담론을 사유로서 반영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차별 경험의 발굴 및 가시화를 위해 감정과 욕망(지향)을 개념에 포함해야 하며, 복합적이고 교차하는 차별의 인과관계를 판단기준으로 답아야 한다. 차별들이 다양한 사례로서 설명될 때 더욱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회, 문화, 법 제도 등 전 영역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 혐오감을 학습, 재생산하고 있다. 차별문제 또한 전 영역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하고 차별금지법은 이 속에서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차별받는 사람의 힘 있는 언어로 존재해야 한다.

02 정의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의 삶 전체 혹은 일상의 전부를 담는 매개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차별을 잘 담아내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차별이 발생한 그 시점과 사건만이 아니라 그를 전후한 삶의 맥락과 현재의 인식과 조건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개념

으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유의미하다. 2007년 혐오반대 세력에 맞서온 운동의 역사를 담아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로서 정의하고, ‘성별정체성’은 인지하고자 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같등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으로서 트랜스 젠더의 경험과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별’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을 포괄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이분법에 의한 차별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성전환 포함)이 정의조항에 있어야 할 것이다. 경계에 있는 존재, 이행하고 있는 과정, 교차하고 있는 상황을 ‘지향’과 ‘정체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 안을 지지한다.

03 차별 유형 중 ‘괴롭힘’은 모욕감, 혐오감 등 차별을 인식하는 사람의 감정적 해석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무엇이 차별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해석과 감정이 중요하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개상담게시판에는 아우팅을 당한 학생이 적은 글이 있다.

“게이xx, 게이년 온갖 욕 다 듣습니다. 저에게 지우개 가루 같은 것을 던지거나 종이 등을 던집니다. 아 괴롭힘...어떻게 할까요?”

이렇듯 본인의 경험을 표현하는 말 ‘괴롭힘’이 법률에 반

¹ 반차별공동행동 주최 연속쟁점쟁점포럼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김준우의 정리를 인용함.



영된다면 한층 더 인간다운 얼굴을 한 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의 경험에는 슬슬 피하기, 무시하는 분위기, 암묵적 강요, 부적합하다는 인상주기, 집단적인 따돌림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 '괴롭힘'은 유용하다.

04 복합차별은 직접, 간접, 교차, 중첩해 발생하는 차별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개념으로 존재해야 한다.

차별은 단일한 사유로만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복잡한 차별현실은 개별법의 어디에서도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 사유를 범주별 구분하는 방식은 사유 간의 중첩과 교차, 충돌을 간과하기 쉽다. 장애인 여성, 이주 노동자 트랜스 남성, 전과가 있는 일용직 노동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레즈비언 등 차별사유가 중첩되는 사례가 그 예이다. 캐나다 법에서는 복수의 사유로 발생한 차별을 정의했고 독일의 경우 차별의 '완전한' 해소의 측면에서 정당화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을 규정하는 실

체법으로서, 곳곳에 흩어져있고 일관성도 없는 차별관련 법제들을 아우를 용도이다. 차별을 위해, 위엄으로서 존재하는 법률의 틈바구니에서 조금은 인간적인, 특이한 법이 하나쯤 존재했으면 좋겠다. '초능력'이 아니고는 남과 다른 이력을 가진 개인의 서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누군가에 비해 누군가는 모두 '다름' 존재이므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전부를 포괄할 수도 있다. 영희 언니와 형부, 내친구 H, 고등학교 친구J의 존재를, 경험을, 욕망을 인정하는 법은 불가능할까? 가족 간에도 소송하는 험악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강해진다는 것은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다. 법 언어를 전유한다면, 그것이 차별받는 모든 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도 같고, 권력을 재분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는 이유다. **안**

신기루 ●

너무 달콤해서 법 같지가 않다.
법제정의 필요성과 법 확장의 오류사이에서 차별금지법에게 특권을!

한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얹어요!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최진협(나우)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밥을 먹으러 갔던 작은 식당 안에 손님은 나뿐이었다. 사장은 저녁장사가 한참이어야 할 시간에 장사가 안 되는 불편한 마음을 매서운 눈빛에 담아 손님 테이블 한쪽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물기를 닦고 있던 식당여성노동자에게 모두 쏟고 있었다. 그 팽팽한 긴장감속에 밥을 먹은 나는, 식당여성노동자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하고 계산대에 섰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정말 맛있었다) 사장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곤 괜히 멋쩍어 “이렇게 맛있는데 아직 입소문이 덜 난 모양”이라며 자주 오겠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사장은 “맛있더니 내가 다 고맙다”며 정말 기뻐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식당한쪽에 있던 셀프커피를 뽑아들고, 식당을 나와 유리 너머 식당 안을 보게 됐다. 그리고 만난 놀라운 변화. 사장이 식당여성노동자와 함께 숟가락과 젓가락을 행주로 닦으며 ‘웃으며’ 얘기를 하고, 식당여성노동자 역시 이전의 무거움과 달리 한결 여유 있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자꾸 하면 습관 되는, 개념 있는 손님들의 8가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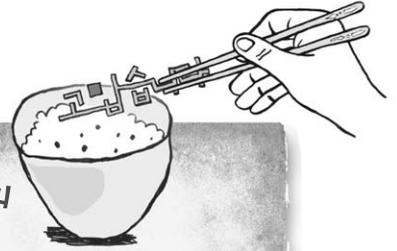
식당을 찾는 고객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담은 태도와 말을 통해 식당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면, 관계의 긍정적인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만난 식당여성노동자들 역시 “손님들이 우리를 너무 믿으로 생각한다”면서, 고객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함을 전해주었다. 그렇다면, 먹는 밥에 식당노동자에 대한 ‘고마움’을 얹는 개념고객이 되는 방법이란? 식당노동자가 해준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밥을 해준 사람에 대한 인정을 담아 보내는 것, 불필요한 벨을 자제하고 필요할 때만 눌러 조금만 더 식당노동자의 입장에 서는 것, 다 먹고 난 뒤 휴지는 절대 그릇에 넣지 않고 한쪽에 모아두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존중의 언어와 태도 취하기, 식당에서 ‘나는 왕’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고객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 실천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성희롱하지 않기(다른 고객의 성희롱마저 용납 못하는 용기 있는 고객¹이 되어보는 것은 개념을 넘어 진리), 주문한 음식과 따라놓은 물을 남기지 않고 먹는 일은 식당노동자가 잔반 정리하는 일을 줄이고 그릇을 정리하는 일도 수월하게 한다는 것 이해하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실천이 수많은 고객들의 '당연함'이 된다면 식당노동자와 고객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재설계될 수 있다. 이외에도 뜨거운 음식 때문에 선블리 쟁반을 받아 안기 어렵다면 식당노동자가 주문한 음식을 내려놓기 쉽게 놓아둘 자리를 마련하는 것, 들어가는 입구에 내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기, 함께 간 아이가 쓰지 않는 숟가락과 젓가락, 물 컵을 흐뜨린다면 제지하는 것 등 떠올려 보면 여러 갈래의 많은 것들이 모두 고객실천이 될 수 있다.

거리에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고객실천이 담긴 브로슈어 천부를 한시간만에 어렵지 않게 거리의 사람들과 나눴다².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내가 아닌, 식당여성노동자를 위한' 것이라 구분 짓지 않고, '나의 실천'이 펼쳐지는 순간 내가 먹는 밥, 내 가족과 친구, 지인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짓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1 고객성희롱에 대한 사립주 책임을 고객이 직접 나서서 묻는 방법, 예컨대 "사장님, 저런 진상고객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참 불편합니다. 사장님이 나서서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보세요.
- 2 민우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립미술관 앞 정동길에서 '한 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엮어요,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이란 슬로건의 거리캠페인을 점심시간, 식당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개념있는 손님들의 8가지 실천!

- 1 먹고 나서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2 벨은 필요할 때 한 번만 누르고 기다립니다.
- 3 그릇에 휴지는 넣지 않습니다.
- 4 반말 대신 존댓말을 씁니다.
- 5 식당에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주문합니다.
- 6 셀프는 스스로! 우리가 주문해야 할 것은 메뉴판에만 있습니다.
- 7 식당노동자에게 슬파르게 하기, 옆에 앉히기, 불필요한 스캔십, 언어적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8 주문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일, 환경에도 좋고 치우기도 쉽습니다.

식당에서의 고객 개념지수 TEST

<p>존중과 감사와 배려가 가득한 개념만땅 고객! 당신의 행동을 널리 함께 해 보아요!</p>	<p>식당노동자를 꽤 존중하는 당신. 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더 한다면 정말 좋겠어요.</p>	<p>식당에서의 매너에 대해 미처 생각해 본적 없으시군요. 이제 식당에서 개념찬 손님이 되기위한 실천을 민우회와 함께 해요.</p>	<p>식당에서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지만 오늘부터 고객실천사항 8가지를 실천 하며 함께 노력해 보아요.</p>
<p>↑N YX Y</p> <p>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내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p>	<p>↑N ↓Y</p> <p>주문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애쓴다</p>	<p>↑N</p> <p>식당에서 진상짓을 하는 일행을 나무라본 적이 있다</p>	<p>↖N ↑Y</p> <p>고객은 절대 왕이다! 고객은 뭉치지 읊다</p>
<p>↑N</p> <p>식당여성 노동자에게 술을 권해 본 적이 있다</p>	<p>↑Y NX N</p> <p>식당노동자가 음식을 내려놓기 쉽게 자리를 마련한다</p>	<p>↑Y</p> <p>식당노동자의 의모는 중요하다</p>	<p>↖Y ↑N</p> <p>'여기요', '아침마 보다 더 적절한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다</p>
<p>↑Y NX N</p> <p>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다</p>	<p>Y</p> <p>음식이나 서비스가 불만스러워 식당노동자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p>	<p>↑N</p> <p>메뉴판에 없는 담배 등을 사다 달라고 하는 걸 관찮다고 생각한다</p>	<p>↖N ↑Y</p> <p>식당노동자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p>
<p>↑N</p> <p>식당노동자가 올 때까지 벨을 계속 눌러 본 적이 있다</p>	<p>↑N</p> <p>'물으센고'를 보고도 갖다달라고 말해봤다</p>	<p>↑N</p> <p>사용한 휴지는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나오면 된다</p>	<p>↖N ↑Y</p> <p>다먹은 그릇을 쓰레기통으로 쓴 적이 있다 (재필이 포함)</p>

출발!



내가 식당에서 먹는 밥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좀 더 공정하고 인권적인 밥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구성해보는 '인권밥상 차리기'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장소든 공감의 열기로 이어진다. 식당노동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대부분 "아줌마, 여기요!"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적절한 호칭의 필요를 역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하는 여성 5명 중 한 명이 일하고, 누구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라 누구든 알고 있는 '결의 노동자'다. 그래서 만들어진 '당신이 알고 있는 식당여성 노동자는 누구입니까'는 나, 엄마, 친구엄마, 엄마친구, 친구, 이모·고모·큰엄마·작은엄마로 이어져 여자끼리의 관계의 궤적이 그려진다. 식당에서의 나는 어떤 고객인지 한발 한발 떼어가며 점검해보는 'Yes or No'³는 풀고 있는 시험지를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잘 움직여지지 않아지만, 질문의 의미를 떠올리며 질문 속에 실천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거리캠페인을 정리하고 '개념고객 8가지 실천'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네 방향으로 흩어져 보이는 식당마다

들어가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다. 왕(고객)의 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는 황벽서⁴를, 꽤 많은 식당들이 왕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며, 고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역모를 꾀하는 떨림 같아 꽤 신이 난다.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뜬은 많이 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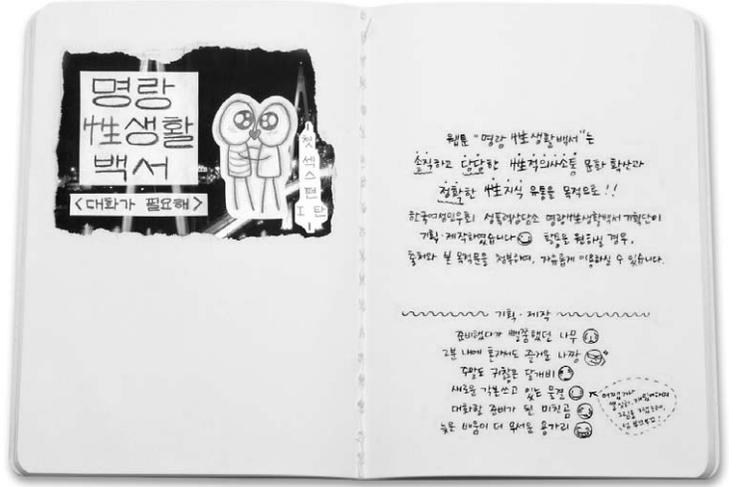
올 한해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_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전해 주었다. “손님들 담배피우는 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적은 휴일에 그마저 있는 휴일도 평일입니다. 주말에 쉴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은 어떨까요?”, “그까짓 4대보험 안 들어도 좋으니까 12시간 일한만큼의 대가가 너무 적다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아줌마’가 아니라면 새로운 호칭을 민우회가 만들어서 제안해주세요!” 등 하나하나의 기대와 희망이 섞여, 더 아무지게 뭉 힘으로 쌓여갔다. 그래서 내년에도 민우회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이 되기를 희망하며 신나게,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달릴 예정이니, 운동화 끈 짚끈 묶고 함께 뭉 준비를 해주시길. **함**

3 <함께가는 여성> 6페이지 오른쪽하단 식당에서의 고객 개념지수 'TEST'를 함께 보아요.

4 안타깝게도 고객(왕)의 도리와 실천을 촉구하는 포스터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 계열. 함께 황벽서를 붙이는 떨림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황벽서는 민우회 사무실에 가득합니다. 여성노동팀 02-737-5763

흥익인간 뜻으로, [명랑 성생활백서]

최김하나(하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보셨습니까, 그 웹툰 씨리-즈

지난 10월부터 민우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명랑 성생활백서 :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의 기획 웹툰 시리즈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적인 상황들을 간결한 만화 컷으로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 깜찍발랄한 웹툰이었죠.

각 웹툰의 내용은 ① 안전한 성 생활을 위한 준비 ② 명확한 성적의사소통의 필요성 ③ 성적 제안에 대한 동의와 거절 ④ 성적 각본 재구성하기 ⑤ 솔직하고 당당하게 성적 제안하기 ⑥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태도 등에 관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툰의 목적은 '솔직하고 당당한 성적의사소통 문화 확산과 정확한 성 지식 유통' 이고, 경쾌한 분위기와 공감대를 잘 살려서 되도록 많

1 현재(11월 중순)까지 업데이트 된 웹툰은 총 5편. 그중에서 1, 3편의 내용과 재미난 댓글을 (민우회 블로그와 디너게시판에 달려진) 몇 가지만 모아봤다. 그 내용은 <함께가는 여성> 9, 1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함께 묻고 답할 수 있는 [명랑 성생활백서 : 대화가 필요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민우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적어주면 된다.

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지요.

댓글도 물론 달아주셨지요?

사실 이 웹툰은 그냥 보고 즐기는 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우' 를 떠올려보고 자신의 성적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성적 상상력을 도모하는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컷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각각의 성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또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식으로요.

첫 번째 웹툰 '첫 섹스 편'에는 폭풍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보기 문항보다 더 다양한 답변들이 올라왔고, 민우회 관련 사이트에 달린 댓글과 그 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간에 느껴지는 묘한 성향 차이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지요. 물론 기획단이 좀 더 선호하는 소수의 답안들이 존재

명랑 성생활백서 Q&A

Q1. 원래 '콘돔생활백서' 한다고 했는데?

〈함께 가는 여성〉 3·4월호를 정독하셨군요 ^^; 초반 계획과 달리, 기획의 심사숙고 단계를 제법 오래 거치면서 (구)콘돔생활백서'는 환골탈태의 운명을 맞이했더랍니다. 우선 백서의 내용을 보다 현실감 있고 알차게 꾸려 줄, 고민 깊고 아이디어 많고 다채다능한 기획단들이 속속 합류하게 되었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콘돔은 성적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적극 활용하되, 핵심은 건강한 성적의사소통이라는 걸 강조하자!'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도 발랄한 [명랑 성생활백서]가 탄생한 것이지요!

Q2. 성인들 VS 안 성인들

섹스나 콘돔, 피임 등의 소재가 가득하니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물이라고 받아들여시는 분도 있고, 지극히 교육적인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적인 주제성을 키우는 데에 나이는 큰 기준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명랑 성생활백서]는 건강한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性)인 물일 수도, 성적 주제성이 2%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안 성(成)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Q3. 애기만 하면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이것은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서... '성적의사소통' 자체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게 아닙니다! 다만 각자 자기만의 성적 진행 단계를 설정해놓고서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다보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고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네!', '그러니까 성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놓아두자는 것이지요. 세상에 100% 소통이 가능하다면 어찌 수많은 갈등이 발생했겠습니까, 성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은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웹툰 3 - 깊은 밤 열대야 편

Q. 스킨십이 그다지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 초특급 필살기를 동원하여 스킨십을 조르는 애인!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① 요구에 응할 경우 → 그 이유
- ② 거절할 경우 → 잘 거절하는 방법

피피피	1번, 요구에 응해요! :) 왠지 귀여운 애교를 거절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그네	'(웃으며) 다음에... 피곤하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번 복수해라' 라고^^ 그나마나 이런 장면이 있어보거나 했음 좋겠다. 대체 언제적이지나... --;;
배시시시	2번 거절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너어~무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네. 우리 오늘은 힘을 아꼈다가 내일쯤 멋진 날을 보낼까?' 라고 더 어리광부리며 애교 100단으로 얘기한다.
코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하더라도 즐겁지 않을 것 같아. 자기도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원하지 않지?' 라고 하면 알아듣더라구요. 근데 아침되면 또 건드림... 호열
굼은버섯스프	스킨십이 그다지 내키지 않는 상황? 안 와요. 초특급 필살기를 동원하여 스킨십을 조르는 애인?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인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때 성지순례를 오겠소이다. 눈에 땀이 나니 손수건 줘...
thugmong1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내키지 않아도 내키지도록 노력해야죠.
어느개의죽음	애인이 없어요. 있다면 늘 기꺼워 텐데!
키드	애인 있는 분들 모여 보세요. 좀 ㅋㅋ 저는 거절합니다. 예전이라면 대충 맞춰줬을 겁니다. 이제는 자를 것 같아요. 잘 거절하는 방법은 저도 정말 궁금해요. 미안해 싫어. 저는 이 정도.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4~6차 연속쟁점 포럼



차별 또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간명한 생각을 나눈 복합차별, 그리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주제로 기독교의 가부장성에 대한 대응, 법 제정과정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2010년판 차별금지법의 입법방향과 법제정활동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 포럼자료는 홈페이지에 가득 쌓여있으니 여러분, 꼭꼭 읽어주세요!

9월 9일(4차)/10월 7일(5차)/10월 20일(6차), 향린교회

● 친구와 함께찾은 민우회 23th 생일잔치!



민우회 생일을 맞아, 민우회 회원이 되면서 느꼈던 숲들의 가슴 뜨끈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 위풍당당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명예의 금빛 홍보대사 벨트를

착용한 21세기 민우회원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서 더욱 가슴 뭉클했던 민우회의 스물세번째 생일잔치였지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9월 10일, 성미산 마을 극장

●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판결, 시청자중심의 해법이 필요하다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판결이 향후 수신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을 토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시청자 중심 해법 다섯가지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 방송중단 등 시청자의 피해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둘, 2012년 12월 아날로그방송 종료까지 KBS2, MBC, SBS 한시적 의무 재송신(의무

제공)이 필요하다. 셋,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론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넷, 디지털 방송 시대의 법률·정책 수립에는 시청자 참여 필요하며, 시청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 지상파의 디지털 직접 수신 환경 구축,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토론회 : 9월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기자회견 : 10월 13일, 서울YMCA 친교실

● 여자, 여자 사랑해요



여성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빠위 네트워크를 꾸미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하며 소중한 친구들을 만드는, [말/놀/깨!]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친구, 뒷담화를 함께하는 친구, 위안과 평화를 주는 친구,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친구 등 여자들의 친구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하루 앞둔 날, 특별한 제사 [여자, 여자를 기리다]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고달프게 하는 날로 남아 있는 명절을 내가 지내고 싶은 제사로 바꾸는 일! 각자가 좋아하는 죽은 여자들을 생각해 보고 글귀나 사진을 두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지요.

9월 20일, 민우회(여자, 여자를 기리다)

10월 8일, 카페 M.BAO(말/놀/깨!)

● 가을과 함께 찾아가는 회원확대캠페인! 찾아가는 고용평등상담실!



찾아오는 상담을 넘어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 거리로 나가 직접 여성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성차별과 성희롱 대응법'을 함께 모색하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체념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상상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작은 의미를 직영여성들과 공유하였습니다.

10월 13일, 정동길

● **여신카드로 나의 연애 패턴을 보는, 멋진 하루!**

타로카드 중에서 '여신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의 연애 감정, 연애 관계를 되짚어보고 이후 발전적인 안을 찾아보는 멋진 하루, 멋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 가웃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지금까지 각자의 손에 들어왔던 카드 중 다른 사람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은 카드를 주고 받는 멋진 시간을 가졌어요!

10월 19일, 민우회

● **이런 현실이면 안 낳을거야, 무조건 안 낳을거야!**



여성이 처벌당하고, 의사가 징역선고가 되도, 시술비용이 올라도 언론의 외면을 받는 현실, 그래서 직접 시민을 만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부감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많은 사람들은 '낙태'의 불가피성, 여성처벌의 부당함, 법적으로 남성은 처벌대상이 아닌 동의 주체라는 것의 황당함, 언젠는 낳지 말라더니 이제는 안낳으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모순 등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무조건] 개사육으로 흥얼거려보세요. '이런 현실이면 안 낳을거야~ 무조건 안 낳을거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10월 30일, 인사동

● **현대자동차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는 14년 동안 소속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소속업체의 소장과 조장의 지속적인 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오히려 회사는 피해자를 처벌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노동자에게 회사는 폭력으로 일관하고 결국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기아차가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일, 현대기아 자동차 본사 앞

● **인권후퇴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퇴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권을 축소하고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는 등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

하여,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이를 비판하며 동반사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파행으로 치달는 인권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이 애초 설립된 목적대로 한국의 인권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위로 바뀔 수 되도록 바로 세워야겠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독단적 운영을 떼뚝하게 생각하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일테고요.

11월 4일/11월 10일, 국가인권위 앞

● **나, 여성주의, #!**



애니그램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해소하고, 여성주의 인식론, 여성의 몸, 성적 소수자에 대한 강의를 통해 답이 아닌 질문으로 지혜를

얻는 시간, 나를 탐구하고 여성주의로 매듭지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성주의학교-간대!'가 진행되었습니다.

11월 9일~11월 23일(총 5강), 나루 원경선출



1895일의 긴 여정, 기륭전자

김희정(하이디)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간담회

사진출처: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며칠 전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통 왔다.
“기륭분회의 숨은 승리주역은 동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MS는 종료하겠습니다.”

앗!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날이 온 것인가!
언제 끝날지 몰랐던 지루한 싸움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실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 반 떡떡한 마
음 반이다. 목숨을 걸고 얻어낸 상처가 많은 승리여서 더욱
그렇다. 비정규직 싸움이 이렇게나 힘들다니 사람이 사람
답게 살겠다는 요구가,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6년이
라는 시간이 걸렸다.

1895일, 이 긴 시간을 싸우면서 “이기는 것”보다 “이겨내
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기륭 조합원들. 그들을 만나러 비
정규직 투쟁사업장의 대명사인 기륭전자 농성장, 지금은
축제의 장으로 바뀐 곳에서 기륭조합원들을 만났다.

기륭전자 노동조합은 햇수로 6년째 가산동 구 사옥에서 천
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변
한 것이 참 많다. 처음 기륭전자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점심
시간에 노동조합 가입을 받았을 때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
이 가입했었다. 그리고 생존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해고가
이어지면서 생활고 때문에, 혹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

쳐가면서 떠나간 이들이 참 많아졌다. 그리고 끝까지 농성장을 지키던 십여 명의 조합원들은 투쟁하면서 만난 이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았다. 부끄러움이 유독 많았던 조합원들이 집회사회의 달인들이 되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기륭투쟁에 연대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늘어갔다. 단순히 투쟁하는 개별사업장 연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로 기륭의 투쟁은 자리 잡았고, 기륭조합원들 또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쉽 없이 달려왔다.

기륭전자노조는 실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투쟁을 다해왔다. 90일이 넘는 단식 농성이며(이때 나는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도 사측은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구속, 서울 시청 앞 고공농성, 구로역 CCTV탑 고공농성, 한나라당 당사, 노동부 등등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는 기본이고 부당해고 이후 늘 회사 앞에서, 정치권 앞에서, 사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복직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어쩌면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을 가슴 저리게 해왔다.'



사진출처 : 전보영씨 장택용 기자

지난 11월 5일(이날이 기륭투쟁 1895일 차 되는 날이다), 기륭사측과의 조인식이후 각종 집회와 인터뷰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륭전자 유희희 조합원을 만났다.

Q. 노동조합을 만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하자면 어떤가? 6년 전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해고를 통보 받았다. 해고사유는 잡담이었다. 그리고 줄줄이 파견회사들로부터 해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기륭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파업,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대량해고. 그후로 우리는 6년 동안 회사 앞에 농성장을 만들어 투쟁해왔다.

Q. 말이 쉬워 6년이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장기성을 하면서와 지금의 심경은 어떠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발을 내딛을 곳이 없는 삶의 끝에 서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다고, 꼭 복직해서 살아남겠다는 각오를 매번 했었다. 나와 우리조합원들은 죽는 거 빼고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기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걱정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데 정말 감사드린다.

Q. (투쟁이 끝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다.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며 투쟁하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다 사는 게 너무 어려워 투쟁현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해고되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돕고 싶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지켜봐 주시라!



사진출처: 진보정치 정책연구소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륭전자 노사합의 문 조인식 내용은 이렇다.

기륭전자 노사는 현재까지 남아 투쟁을 계속해 온 노조원 10명을 직접고용하고,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합의는 장기투쟁사업장 최초로 직접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2년 동안 같은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시작하던 기륭의 끈질긴 투쟁들……. 늘 시작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연대를 요청하곤 했었는데, 죽을 등 살 등 싸우고 있는 기륭조합원들을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또한 잊어버렸었다. 가끔 급박한 문자를 보고서도 혹시 양치기 소년이 아닐까 의심하고 누군가 많은 이들이 도와주겠지 하며 숨어버렸었다.

지난 달 민우회 세상만나기¹로 기륭농성장에 갔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어지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난다.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이나고, “소소하지만 거창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복직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릴 잊지 말아 달라”던 그녀의 대답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

이 난다.

기륭전자 구 사옥농성장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부지에는 새로운 회사가 생겨날 예정이란다. 6년 동안 지지고 볶던 그들과 우리들의 투쟁의 현장. 그곳에서 나는 정말로 작은 정성이나마 기륭투쟁을 도우며 정의를 찾고 싶었던 것 같다. 기륭전자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하면서 울고 웃는 기륭조합원들을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자꾸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폭넓은 의미에서 고마운 사람들을 포괄하는 동지, 연대하는 동지, 힘이 되던 동지. 나도 그들에게 동지였고 앞으로도 짝꿍 동지이고 싶다. **앤**

1 [세상만나기]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날이다.

하이다●

11월 중순 아직도 가을인가? 지금도 가산동 기륭전자 농성장에 가면 센터해진다.

위기의 경제학, 금융위기는 여성의 위기? 〈G20 대응 여성행동〉

이지운(정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G20 서울정상회의가 소리 없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지워지고 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뒤영긴 실타래가 풀리듯 일파만파 세계 경제 시스템의 연쇄 오류를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 GDP의 85%를 가진 부유한 20개 국가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언제, 어떻게 한국이 20명의 힘센 친구들의 일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10년 10월과 11월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G20의 효과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들을 세뇌 받았고, 정작 그 G20이 열리는 '대단한' 회의장 근처에는 얼씬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서 연대하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민중행동(People's Summit)은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행사장 사용이 거부되었고, 한국을 찾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각국 시민사회 운동가들 중 G20 회원국이 아닌 소위 '가난한' 나라 국적을 가진 다수의 시민활동가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11월 11일 몇몇의 부자나라 시민운동가들은 버젓이 코엑스의 철통 검문을 통과하고 회의장 가까이

에서 G20 정상회의 소식을 그들의 언어로 전했고, 대다수의 한국과 기타 국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역 집회에 참석했다.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민중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G20 대응 여성행동〉은 '빈곤의 여성화 심화하는 경제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명명하며 여성들의 공식/재생산 노동을 통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위한 요구를 가시화했다. 이 글은 '여성들은 왜 위기를 체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며 사건기록의 형식을 띤다.

G20 2개월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의실에서 조출한 회의가 열렸다. '금융, 개발, 여성'이라는 키워드만을 가지고 각계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는 내부방담회 자리였다. 한국에서 개발원조 분야에 성주류화 필요성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개발(Development) 이슈를 제안하며 젠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실제 2010년 6월에 G20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개발 이슈페이퍼'를 살펴보면 성장중심(Growth-

oriented),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키워드로 하는 개발원칙을 제안하며 한국의 근대화 경험을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개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개발 의제에 관한 발표를 맡은 전문가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목표만 있고 실행방법은 없는' 불충분한 원조계획으로 평가하며 G20 개발 의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에서 '개발'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이르며 행정수도 이전, 4대강 개발 등의 이슈로 점철되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국가 발전 거대담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 발전 정책이 G20이 옹호하고 있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우수한 근대화 사례로 평가되고 있었다. 한국식 개발(Development)의 경험이 그대로 원조(Aid)로 해석된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G20 내에서 발언권조차 가지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무관세 무역, 거버넌스 지원을 제안하고 있었다. 마치 '아이폰에 어플을 제공하듯(iPhone 모델: 지식제공자가 노하우 공급)' G20 회원국이 우수한 경험과 지식을 저개발 국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젠더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G20 논의에 성평등 관점의 개입을 위해 한국의 근대화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무작정 성평등 관점을 G20 개발이슈에 통합하라는 목소리가 어지럽게 뒤엉키고 있던 시점이었다.

G20 1개월 전

2010년 10월 15일 G20 회원국 정부대표단은 유례없이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공식적인 협상에 응했다. 세계 70여개 NGO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G20 세르파(정상회의 정부 교



섭대표단)와 만나 G20 관련 핵심안건 5개 분야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대화(Civil Dialogue)'라는 회의명답게 어떠한 논쟁도 충돌도 없이 조용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¹ 합의 가능성, 기후변화 및 인권 이슈에 대한 실망스런 정부 측 답변만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수많은

¹ 금융위기 대응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으로 IMF가 제안하고 있는 1) 금융안전 분담금, 2) 금융활동세, 3) 금융거래세 중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거래세 합의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외국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토빈세가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영국과 캐나다에서 금융거래세를 사회복지나 국제원조에 쓰자는 '로빈 후드 세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G20 대응 여성행동 주요 요구〉

1. 성평등 관점이 철저히 배제된 G20의 금융위기 대응 및 개발 정책에 반대한다!
2. 빈곤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좋은일지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3. 여성의 무보수 돌봄노동 증가시키는 복지비용 축소 반대! 부자증세로 복지예산 확충하라!
4. 금융거래세 도입에 신속히 합의하고, 금융거래세의 70%를 여성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하라!
5. G20 개발 이슈에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하라!
6. 여성농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을 폐기하라!
7.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안보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하라!
8.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방해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9. G20에 성평등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라!

단체에서 제시한 성명서와 질의서에서 제시된 어떠한 요구도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10월 G20 준비위원회는 개발이슈 진행현황 보고에서 향후과제로 여성과 환경이슈를 검토하겠다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 대화에 참석했던 한 활동가는 '어차피 서울정상회의에서 기대할 내용은 없다'며 '프랑스에서 열리는 차기 G20회의에서 금융거래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토론토 회의의

연장이자 한국 정부의 G20 입단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여성'의 관계규명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

G20 대응 여성행동 개시

세계 빈곤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는 Social Watch는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지수(GEI)의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변화를 측정한 조사에서 한국을 성평등지수의 후퇴가 가장 극심한 하위 13번째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². 최하위 10개국에 들면 개입이 필요한 특별 관리 국으로 분류되는데 다행히도 특별 관리국은 면한 상태다. 〈G20 대응 여성행동〉은 11월 8일 '성장중심 개발과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1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G20 5대 핵심영역별 - 1) 고용복지, 2) 빈곤개발, 3) 농업, 4) 평화인권, 5) 성인지적 협력체계 - 여성단체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20 정상들에게 '자이언트 귀'를 선물하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G20은 끝났다. 예상대로 그들의 언어에 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고려도 담기지 않았다. 〈G20 대응 여성행동〉은 '금융위기는 여성의 위기'라는 표어를 통해 변혁의 시작을 예고하고자 했다. 금융위기 해결책 논의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위기를 '넘어' 더 낫은 경제체제로의 변혁을 여성들이 기획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무기력한 G20은 금융위기를 여성들의 위기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²

정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거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안착해 국제연대와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node/11561>

기획

드디어,

2010년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혹은 마음만) 바빴다. 200호를 준비해야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발행초기에 풍겨지던 무한포스 쉬크함과 무한 매력 함여의 모습을! 마음 같아서는 한 호씩 내용이며 걸모습이며 전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건 얼토당토않은 욕심이니 추리고 추린 내용들을 전해볼까 한다. 시작한다. “구호의 남발이 아닌 친절한 사실탐구로서 여성 스스로의 공감 속에” 만들어진 <함께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200!



200호를 맞이하여 처음 시작한 작업은 199권의 함여를 꺼내놓고 한참을 째려보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과거에 취하고, 지금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내용들에 웃음 지으며 과거를 만나는 것이었다. 지금의 <함께가는 여성>의 모습과 성격을 만들어 온 것은 수많은 고민의 과정이 함께하고 있었다. 과거와 만나며 찾아낸 '200호를 통해 기록해두면 좋을 내용' 들을 정리¹⁾해본다.

우리 함여가 달라졌어요!

정슬아(여경鏡)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함께가는 여성>(이하 함여)은 1987년 9월 한국여성민우회의 발족과 함께 시작되었다.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힘찬 대열에서 받침돌이 되고자 한다' 고 밝힌 창간사가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지지만 이러한 목적을 피고 태어난 함여는 세가지정도의 방향을 갖고 있었다.

첫째,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건장한 여성상을 고취시키고 둘째, 여성들의 연대의식을 돕고 셋째, 여성대중이 올바른 정치, 사회의식을 갖도록 힘쓰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처음의 함여는 거의 전 계층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신문이었다. 사무직여성, 생산직 여성, 주부, 청년 여성 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뤘다. 그리고 원대한 꿈이 있었으니, 함여가 '여성대중지' 로의 발돋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대상층을 염두에 둔 함여는 깊이 있는 글과 진정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재정적 문제(지금도 함여발행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그러다 1989년 주부회원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구성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처음의 계층을 뛰어넘는 여성들의 연대를 이뤄낼 수 있는 '여성대중지' 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물론, 사무직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느껴 계간지 <사무직여성>을 만들기도 했다. 90년에는 주부회원을 중심으로 한 생협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기 위해 애썼고, 지회활동(지금의 지부)을 자세히 알렸다. 물론, 지금은 여성민우회 생협과 전국에 있는 9개의 지부활동과 관련해서는 함여와는 다른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다.

아주 간단하고도 생략한 내용이 많은 함여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덧붙여서는

크고 작은 함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 볼까한다.

발행 시기, 형태, 그냥 재밌는 삽화, 그냥 재밌는 광고 등등.

1) 본문에 있는 내용의 주된 기반은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고해 작성 했습니다.

- 1988.10 함여 14호, 창간 1주년 기념 설문조사보고서 '가깝고도 따뜻한 글을 읽고 싶다'
- 1989.2 함여 18호, 주부를 주 독자로 결정한 이후 함여의 위치와 지리의 새로운 고민이 있었던 좌담 '함께가는 여성이 나아갈 길'
- 1991.10 함여 50호, 함여 50호 발행을 기점으로 한 제작과정의 역사정리와 회원들의 이야기 '한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사람의 한걸음을 위해', '<함께가는 여성>에 바란다',
- 1995.12 함여 100호, 함여 100호 발행을 기념으로 한 87~96년 이후 편집위원들의 제작 에피소드와 이후 방향을 이야기하던 좌담 '생황을 쓰다듬는 글로 함께 가는 지혜를 담아야'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함여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1999년부터는 계간지로, 2002년 5월부터는 지금과 같은 격월로 발행되고 있다. 그 판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처음엔 A4크기의 신문²⁾, 그에 절반의 책자형태, 지금의 B5 변형사이즈까지 모양도 다양하다.

그냥 재밌는 삽화³⁾

파격적인 삽화비에 빛나는 만평, 만화 등을 모아보는 것은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겠다. 당시의 민우회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컷의 만평에 혹은 이야기하는 방식의 4컷의 만화에 혹은 표지에 넣었던 재미난 일러스트 컷은 함여의 성격의 변화(점점 말랑한 내용을 담아가는)를 볼 수 있다.



- 2) 신문형태의 함여는 소위 사회과학서점 등을 통해 판매되었고, 신문회원(지금의 구독회원과 비슷할 수 있겠다)을 모집하기도 했다. (신문회원 모집광고 이미지로 넣기)
- 3) 삽화를 그려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혹시, 어떻게 다시 한 번 함여의 만평 혹은 삽화를 정기적으로 그려주실 수는…… 하하하!"



알고계십니까



그냥 재밌는 광고

김지나웨딩컬렉션

두·분·의
소·중·한·날·을
더·욱
값·지·고·아·름·답·게
일·대·기·워·하·여
어·미·니·의·마·음·으·로
한·줄·한·줄·경·성·을
다·하·고·있·습·니·다

웨딩·식혼·예복·인주복·퍼티복
부케·미용·사진·화장

디자이너 김지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길 14
한미빌딩 202 PCL(에일드)층
TEL 02-179-2241

참여에는 정부기관의 광고, 기업광고 등이 들어가곤 했는데 대표로 하나만 언급하고 갈까한다. 지금도 민우회는 참여발행 비용을 광고를 받아 조달(?)할 수는 없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데 역사적으로 '죽- 그래왔구나 싶은 마음과 어느 회원이 운영했던 건 아닐지, 어떻게 파낸 광고였는지 궁금한 그냥 재밌는 광고다.

이것 말고도 지난 199권의 참여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소식이 궁금한 매력만점 회원의 이야기와 여성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슈 내용들까지. 우리 민우회의 역사와 고민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참여가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이어지는 200호 특집의 내용들도 그러하듯이 참여는 민우회의 활동과 함께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와 함께 변화를 겪어왔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활동이 묻어나는 따뜻한 참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이다. ㉞

여경鏡 ● 더 재밌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더 알차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헛

이 글은 <함께가는 여성>(이하 참여)에 대한 짧은 감상문이다. 180호라든가 197호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1987년 9월의 1호부터 2010년 10월의 199호 참여까지 보(아야만 하)는 참신하고 재미나지만 머리 아픈¹⁾ 경험을 한 후에 쓰는 글이다. 감히 리뷰를 할 겸양이 안 되는 일개 회원의 독후감에 귀한 지면을 내준 건, 23년 치 참여를 한자리에 놓고 읽는 일을 시킨다고 진짜 하는 회원은 없기 때문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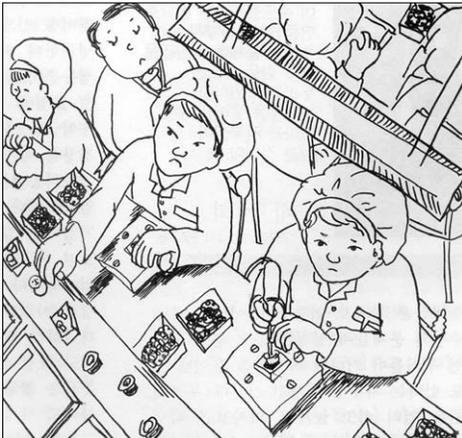
옛날 참여를 읽다

노재운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편집이루미

사실 8, 90년대의 ‘옛날’ 참여에 더 눈이 갔고, 그래서 ‘읽었다’ 기 보다는 ‘체험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 그렇게 옛날 참여보기는 참여라는 매체를 통해 민우회를 가체험 하는 일이다. 특히 2000년을 넘겨 참여를 처음 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해설이 풍부한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기분과 여운을 남긴다. 엄혹한 기운이 도는 민중미술 판화 표지부터 상큼한 몸짓의 상근자들이 떼로 출연하는 표지까지, ‘가리방²⁾’ 유인물을 연상시키는 정직한 A4 판형의 신문에서부터 칼라표지에 옅은색을 하는 격월간지까지, 또는 6월항쟁 전후 표출된 여성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기대부터 지자체 이후 여성의 실질적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부터 개정의 개정까지, 여성들의 “분단의 철조망”을 걷고 조국통일 전선의 선두에 서길 독려하는 절정의 민족민주운동 프레임부터 환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다채로

운 관심까지,³⁾ 참여는 민우회의 의제와 운동과 갈등과 변화의 다양한 결들이, 당대의 언어로 가장 치열하게 반영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우회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성운동 새로 쓰기⁴⁾」를 보면 정연하게 알 수 있지만, 매 시기마다 의제를 발굴하고 개입하며 선도하는 공기와 기운, 또는 아우라는 참여를 통해서만 날것으로 느낄 수 있는 썸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경험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1987년을 선배들의 입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에게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힘찬 대열에서 받침돌이 되고자 한다”⁵⁾는 9월의 창간사는 마냥 아련하고, 1990년대 초중반에는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하위분과쯤으로 알던 사람이 참여를 통해 다시 발견하는 당시의 여성의제들은 흥미롭다.



숨은그림찾기

하지만 꼭 민우회-여성운동의 역사를 아심차게 읽어내기 위해 지난 참여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마음먹고 창간호부터 열어봐도, 나처럼 몇 호를 넘기지 못하고 80년대 후반의 대중문화 아이콘과 민우회 색깔을 절묘하게 결합한 ‘숨은그림찾기’나 ‘낱말 맞추기’⁶⁾에 마음을 주며 길을 잃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옛날 참여를 보는 재미는 무엇보다 ‘그 당시’의 민우회가 참여를 통해 건네는 말들을 지금 이곳의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일별하고 해독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20년 전 참여 편집진의 생각은 어땠을까. 1989년 참여의 “함께가는 여성이 나아갈 길”이라는 꼭지, 시대를 반영하는 표현인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좌담은 참여가 “많은 독자들과 밀착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⁷⁾ 1991년 50호를 맞는 글 역시 그동안 “독자들의 관심과 의견이 집중되지 못했다”고 자평하고 있다.⁸⁾ 둘 다 최근의 참여 편집회의에서 들은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세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지점들은 닮아있는 걸까.

어떤 내용들은 오늘의 내 감각과 삐끗대기도 한다. 예컨대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도구가 마땅찮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특정한 대중문화물을 유해 소비물로만 보는 매체 모니터링⁹⁾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우며, ‘남편이야기’¹⁰⁾의 어떤 구절들은 그때는 살갑게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이라면 어떻게 좀 헛갈리는 구석도 있다. 기획 자체로 논쟁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초창기의 ‘남성란’¹¹⁾은 그런 점에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전투적 여성노조원들에게 감동을 느낀 뒤 ‘여성주의자’로 거듭나 “여성들이

1) 이 복합적인 느낌이 궁금하다면 민우회 사무실로부터 「함께가는 여성」의 연도별 묶음을 택배로 받은 뒤 책상 위에 쌓아두고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란다.

2) 봉조소판(綴冊)에서, 면수(面數)에는 관계없이 길게 잇대어 짜는 판의 일본말.

3) 학학

4)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 - 여성운동 새로 쓰기」, 2008, 한울.

5) 1987.9.12, 참여 창간호, “창간에 부쳐”

6) 여성노동자나 도시빈민 가족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로 만든 숨은그림찾기는 1988년 10월호(15호)부터 대략 6개월간, 여성정책 이슈 등을 문제에 포함시킨 가로세로 낱말맞추기는 창간호부터 1년여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정답자 추첨을 통해 당시 금액으로 1부당 500원에 판매하던 참여의 6개월분 무료우송권을 제공했다.

7) 1989년 2월(18호), 좌담 “함께가는 여성이 나아갈 길”

8) 1991년 10월(50호), 편집실의 목소리 “지령 50호를 되돌아보며”

9) 90년대 초반에 자주 등장하던 논조의 매체분석 중 가령, 1991년 8월(48호) 영화비평 “오락성으로 위장한 폭력물이 판친다”

10) 1993년 6월(70호)부터 1995년까지 ‘내 아내는 자랑스런(?) 민우회 열성회원’이라는 부제와 함께 부정기 연재된 꼭지

11) 1989년 10월(26호), 편집자 주에 따르면 ‘함께 어깨걸고 나아가야 할 남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취지에서 신설됐으나 10월호를 끝으로 자취를 감춘다.

여! 자각하고 더 분발하리”는 제안을 하는 남성 노조위원장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가 주는 거리를 더 멀리 두고 재계 만든다.

참여의 말 걸기 방식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은 어떨까. 가령 생협의 출발을 알리며 “소비자협동조합에 참여하자”는, 계몽의식 다분한 어투는 80년대를 넘기며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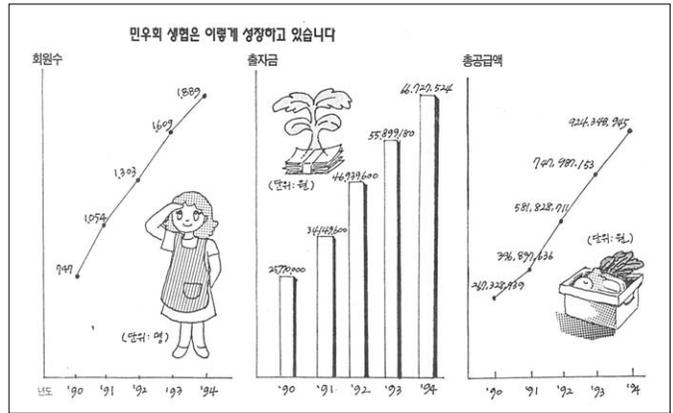
반듯하고 건조한 꼭지명으로 일관하다 마침내 “봄·봄·봄을 맛보세요”라는 카피라이팅 개념을 도입한다.¹²⁾ 기혼여성의 성문제를 조심스레 다루던 한방칼럼이 어느덧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로 변화해가듯 조금씩 트이는 숨과 여유가 느껴진다.

지면의 압박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으나, 대략 이런 방식으로 옛날 참여읽기 목록을 작성하며 소소한 존경을 들먹이다보니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다. 투박하게만 다가오던 과거에 대한 존중감, 또는 20년 넘게 민우회가 만들고 소통하고 개입해온 치열한 역사적 공간의 면면에 대한 존중감이랄까.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진짜다.¹³⁾ 과거에 참여를 이루던 분들의 열의를 행간에서 발견할 때 참여에 느슨하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으로서는 뒷목이 좀 따끈해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참여의 나아갈 길을 조망한 오래 전 표현을 빌려 독후감을 마무리할까 한다. 옛날 참여가 한 말 중에 ‘생활을 쓰다듬는 글로, 함께 가는 지혜를 담아가자’는 말이 있다. 15년 전 참여 100호를 맞아 한 편집위원이 하신 말씀이다.¹⁴⁾ 물론 15년 후의 나는 다른 맥락과 이해로 이 문장을 읽고 있으니, ‘생활’이란 말은 필요하다면 다른 단어들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잘 쓰다듬는 게 중요하다. 뭘 어떻게 누구와 함께 지혜롭게 쓰다듬을까? 그건「함께가는 여성」통권 300호에 독후감을 쓰는 분이 이어 받아 쓰실 예정이다. **엮**

노재윤 ●

‘발목핼프운동’에 목-빠져 있는 재윤이 199권의 참여를 숨차게 읽고, 14개의 각주를 달며 잘 쓰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에 처음으로 그림이 등장하는 순간! 1995년 4월, 92호

12) 1989년 10월(26호)의 생활속의 실천 → 1997년 3월(115호) 생협소식

13) 진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다. 「함께가는 여성」의 연도별 묶음을 택배로 받은 뒤...

14) 1995년 12월(100호) 그때 그 시절?민우회 이야기⑧「함께가는 여성」의 역사(100호 맞이 좌담) “생활을 쓰다듬는 글로 ‘함께 가는 지혜’를 담아가자”



시작과 지금이 만나 이후를 고민하다

마음 같아서야 1987년 참여의 첫 담당자부터 현재 담당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길 바랐다. 하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어도 시작과 지금이 만나는 것도 꽤 의미 있다고 중얼거리며 11월초, 신진화(참여의 거의 '첫' 담당자), 정슬아(참여의 현 담당자), 권미혁(민우회 대표보다는 시작과 지금의 연결고리 역할) 이렇게 셋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정슬아(여경鏡)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 <커피 문>에 모여 커피말고 맥주를 주문하며 시작된 시작에 대한 이야기

신진화님은 현재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참여를 담당한 건 17개월 정도. 여성지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잡지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평론>을 제작하는데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하튼, 참여가 처음 발행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여성잡지를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른바 불건강한 정보와 마인드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삶 혹은 현실에 대한 뿌리 깊은 해석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안적인 여성잡지를 꿈꿨었던 거 같아요. 기관지로서 혹은 기관지를 더 떠나서 약간 독자적으로 실제 여성들이 집에서 여성잡지 보듯이 참여를 보면서 생활의 정보와 자기의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적 잡지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기면서 한 발 물러서서 이것만 보고도 포괄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즘 이슈에 대해 동네 이줌마

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수를 많이 찍는 단체도 잘 없었고, 일부에서는 계량적으로 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참신한 시도라고들 했죠."

#. 직접 취재를 나가거나 구호를 없애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거나

참신하고도! 획기적이며! 직접 움직임!이 느껴지던 처음의 참여들을 보면, '직접 취재를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담당자가 취재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현장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고, 미디어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어려워 '그것'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민우회 활동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니 취재를 나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다고. 또 어떤 점이 달랐을까? 처음엔 "본인이 해왔던 (학생,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민우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말랑말랑 하니까 '00에 반대한다! 투쟁!' 등의 구호로 끝내며 글을 마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돈을 완화(?)하는 일을 신진화 넘겨서 담당했었다고 한다. (과정에서 원고의 절반은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 생활감각, 계속해서 신선하게!

이날의 만남에서의 가장 오래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것이었다. 기억에 남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왔던 생활감각이 뛰어나게 발휘되었던 ‘혼수절약 캠페인, 이전에는 없었던 TV드라마(피튀기던 운동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미디어에 대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하거나, 생리휴가에 대한 운동, 생활재를 가지고 만들어보는 요리법, 몸 살피기, 사회주부대회, 컴퓨터 활용방법(연재가 끝난 후엔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대회를 하기도 했다) 등에 대한 단상들은 삶과 가까운 이야기를 뽑아내 나누는 것은 계속해서 민우회의 운동이 쟁거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집에 많은 인쇄물들이 오는데, 참여는 터치나 적용의 부분에 참신함이 있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싶은 것들이요. 그런데 읽고 나면 허무한 것들이 많아 아쉬워요.

뒤에 더 나올 것 같은 글들이 그대로 끝나버리니까. 좀 더 확정을 해주고, 이 측면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복사해놓고 자료로 써야겠다 싶다가 끝까지 보면...아무튼 그래도 새로운 생각들을 읽게 돼서 정말 좋아요.”

내용의 신선함과 ‘완결성’ 있는 글에 대한 의견에는 벤자민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측면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답은 스스로 찾아라’ 하는 경향이 있고,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려면 지금의 공력에서 3배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사실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나에 대

한 무책임으로 환원되지 않나요? 강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은 답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 자체도 철저하지 않게 되지 않나 싶어요. 강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는 답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대답과 함께 공력을 더 투여해야 가능한 ‘좀 더 탄탄한 글의 확보’는 집단성(같이 고민하고 글을 완성하는 것들)을 갖는 방법을 제안해주셨는데, 민우회가 갖고 있는 풀을 활용하여 좌담을 열거나 기획부분에 적극 같이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요즘의 참여의 모습에는 뭐랄까? 이른바 정상적이지 아니한 삶(생활형태)을 사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정작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었다.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운동권사람들을 너무 생각하거나 차 해냈던 반면에 요즘은 그쪽 목소리는 ‘아! 충분한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보면 요즘의 참여에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던 것 같다.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야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건 계속해서 평가의 지점으로 남는다.

여하튼, 그날의 만남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여성들의 진부하지만 희로애락의 이야기들을 담은, 민우회 활동을 담은 <함께가는 여성>이 좁은 틀의 사람들끼리 보는 소식지가 아니라 여성주의의 눈에 빠지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쓰여 내밀 수 있는 참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요즘엔 긴 글씨 상품명이 유행이라고 한다. ‘녹차를 넣어 만든 산뜻한 면과 시원한 동치미 육수가 그대로 들어있는 000 녹차생냉면’ 이라든지 ‘묵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 이라든지 <함께가는 여성>도 성격이나 제작과정을 담은 텍스트를 앞에 붙여보는 건 어떨까 싶다. **11**

여경鑽 ● 과거를 정리해두는 작업은 참 어렵다.

에 독 회원이 본 <함께 가는 여성>

민우회에는 함여를 사랑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다. 200호를 맞은 함여에 대한 축하 인사와 전하는 말들을 안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 마련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회원상 중 '착한 남편상' 1호 수상에 빛나는 홍태한님과 민우회의 각종 인쇄물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언어의 미술사(?) 달리의 글을 함께해보자. -편집자 주

함께가는 여성, 더불어 가는 여성

홍태한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여성민우회는 한국 여성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겼고, 남길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간행된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그러면서도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썩 그렇게 유쾌한 반응은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모습에서, 하나 보다는 '함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하는지를 안 것도 소독이다.

'혼자'라는 말보다 '우리', '함께'라는 말이 가진 큰 울림. 아마도 이것이 여성민우회가 지금까지 쌓아 놓은 숭한 공적들 중에서 가장 큰 공적이 아닌가 한다. 호주제 철폐,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여성이 웃는 명절 보내기 등, 마땅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던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 바로 잡아나가면서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됨을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함께'라는 말이 가진 배타적인 의미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함께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모순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우선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이름으로 뭉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지는 않아도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달라도 어울려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작은 차이가 나중에 틀이 넓어지게 되면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 가는 여성이 되었으면 한다. <함께가는 여성>에 수록된 글들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민우회 회원들은 아직 아니더라도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들의 글이었다면 더 큰 공감을 주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본다. 사회는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할 일이 아니라, 다름의 조화를 추구할 때가 되었다. 굳이 '함께'라는 말에 시비를 걸면서, '더불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더불어' 가다보면 '함께'가 되는 법이다. **함**

홍태한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에서 민속음악을 강의한다. 가족과성성담소의 활동가 '허브'의 남편이다.

200호를 맞이하는 “함여가하는 여성(이하 함여)”이리

달리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우선, 대빵 큰 초 2개. 각기 다른 땅에서 나왔지만 줄기는 맛달아 하나로 합쳐진 연리 목을 닮은 그런 초를 쪼은, 한입 떠먹으면 머리가 쪼하게 아플 정도로 달달한 초코케이크를 함여에게 선물하고 싶다. 한 호 한 호 숨 가쁘게 달려왔을 함여. 함여는 내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 중 하나다. 이 창이 두루두루 많이 팔리길 바라며 제품의 특징 점을 열거해 볼까 한다.

우선, 이 창은 주로 길고 좁게 만들어져 편협한 전방 제공으로 질타를 받는 타 제품과 달리 사각지대 없이 바닥까지 깊게, 양옆으로 넓게 열려져 탁월한 시야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단열보온성이 우수해 이 창을 통하면 차별이 존재하는 많은 지점이 온기 가득한 시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항상 수고를 들여 깨끗하게 닦아 놓으려고 하는 많은 손길 덕분에 왜곡 없이 투명하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다. 무엇보다 창 의 생명은 방법기능.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하게 일할 권리 등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권리 등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기대하시라. 이뿐인가! 착실히 발밑을 땅을 단단히 다지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유쾌하고 재미진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오락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창이다. 이런 최첨단 기능을 두루 갖춘 창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02-737-576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다. 

p.s. 얼마 전 즐겨 읽는 영화주간지가 777호를 맞아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울리게 하는 트리플세븐을 표지에 새겨서 발간했는데, 그 잡지의 창간호를 읽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었다. 함여는 언제쯤 777호를 맞게 되는 걸까? 격월간 지나까... 음... 1년에 6권 나오니까... 앞으로 96년 후구나... 괜히 계산했다. 머지 이 아득한 느낌. 아무튼 함여 포에버~

달리 ● YANGJI NOTE

애초에 기획된 '해독회원' 셀프인터뷰란 타이틀을 부담스러워 하던 그녀. 그러나 달리만큼 함여를 고민할 수 있는 이도 흔치 않을 거란 우리의 변함없는 기대 혹은 부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을 느끼면 누구나 괴롭습니다. 털어놓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의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조차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안에서 쌓여 가면 영혼은 무력해지고, 치유를 요청할 힘조차 낼 수 없게 됩니다.

최근 한국 서점가에는 눈에 띄게 심리치유 에세이나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마음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 의지가 부족해서라거나 마음이 약해서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치부하는 말이 위정자의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심리학 서적들은 단지 한 개인의 내적 병리를 분석하는데 치중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평가' 하는데 그칩니다. 사회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상적인 대인관계 처세술을 던지거나 개인 내면의 병리 탓이라고 말합니다. 똑 떨어지는 분석을 듣고 있어도, 어쩐지 성에 차지 않는 기분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내 마음에 달린 무거운 추는 별로 가벼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현정의 '조용한 마음의 혁명'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회 구조와 개인의 내면을 연결해 조망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와 역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심리가 한국 사회를 작동시키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점이야말로 이 책이 다른 심리학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임상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최현정이 펼치는 마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간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저자가 상담한 사람 중 "자기는 '쓰레기'라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삶을 살아서는 뭐하냐는 깊은 우울



마음을 여는 인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마음의 혁명’

함수연 ● 미디어 일다 출판기획 PD

에 빠져 아무런 의욕 없이 잠만 자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쓰레기가 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만 자고, 밥만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이 나이 먹도록 직장도 없이 돈 한 푼 못 벌어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저자가 물었습니다. “쓰레기가 뭐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말합니다.

“다 써서 아니면 쓸모없어서, 더러워서 버리는 물건.”
“누구누구씨, 쓰레기 맞아요?” 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자신도 자기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쓰레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고,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쓰레기라고 그랬다고, 저자는 이 사례와 함께 부조리에 항의하는 발언을 ‘불법집회’나 ‘테러리스트’로 개념화시키는 사회의 모습을 연결시켜 읽습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가진 가치를 부정하고 무력감에 빠진 사람처럼, 부조리에 대한 항의에 ‘불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부조리를 뜯어 고치는데 쓰여야 할 귀한 노력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소모”됩니다.

저자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가하는 폭력의 메커니즘과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 이름을 내면화하게 되는 과정을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름붙이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찰하는 자기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 힘을 뚜렷하게 긍정합니다. 일상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심리를 이해하고, 무력한 개인이 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웁니다. 사회적 폭력과 국가폭력에 다친 사람들의 내면을 접하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쉬운 상황에서, 저자는 오히려 인간의 선함에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강한 긍정이야말로 이 책

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에너지이자 위로입니다. 출간 작업을 함께 하면서 같은 원고를 여러 차례 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책을 읽을 때마다 전해주는 느낌과 메시지가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이고, 내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내 마음을 비쳐 보이는 거울을 마주대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자가 참으로 좋은 상담가 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가에서 한 번 읽고 사라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두 고두고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책, 나의 성장과 함께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책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인연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혁명’은 나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함이라면, 진짜 혁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귀를 찌렁찌렁 울리는 큰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파장이 가져올 변화는 심상치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해 가는 저자의 태도는 그 시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것입니다. **㉞**

“사람들이 치유 작업을 하면 잘 될 수 있을런가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합니다. ‘마음을 여는 인간의 능력을, 어둠을 밝히는 투명성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에서 저는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 투명성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투명성 덕에 오히려 나 자신이 치유 받습니다. 인간에게 낯선 이 땅 위에서, 조용한 혁명을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함수연 ●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만들고,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활동을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일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아듀, 민우회!

권미혁¹⁾(벤자민)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자기가 (전생에서든 현세에서든) 만든 온갖 원인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그 조건이 얽히는 결과에 인연이 있다. 물론 그 인연은 다시 새로운 (윤회의) 조건을 만든다.

그렇다면 지난 6년간, 민우회는 내게 어떤 연(緣)이었을까?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민우회는 본성으로 가는 여정의 도우미 같은 존재였다.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은 곤란하다. 힘들게 쌓아왔던 만큼 자기의 가치관을 주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우회는 대중운동을 지향하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통제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압력 말이다. 이 과정에서 운동가들은 많은 것과 부딪힌다. 무엇보다 사람, 특히 자기와 늘 싸우며 상처받는다. 민우회와 함께 한 이런 싸움에서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기다림을 배웠다. 지금도 내 휴대폰 메인 화면에는 “될 일은 된다.”

라는 문구가 떠있다. 아무리 조바심쳐도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때로는 멍하니 넘어가는 게 더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경험은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잘 것 없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만큼 서로 마음 모아 같이 이루어나가는 힘을 믿게 된다. 타협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우회에서의 평등 혹은 반차별감수성과 소통의 지향을 통해 타인을 ‘인정’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맞추어 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일단 반차별 감수성이 생기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넓어진 시야에서 사물은 더욱 새롭다. 물론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너무 앞선 감수성은 도리어 오만과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민우회의 일이 사람을 보고 사람과 하는 일인 만큼 내게 준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복원시켜 준 일이다. 홀로 있는 것을 즐기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내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은 소중한 것이었다.



하트를 그려보려고 했으나 두 손 가지런히 모으기에 그친 수줍은 손 그리고 웃는 얼굴.

1) 권미혁, 권역(미역) 등의 별칭을 섭렵한 그녀는 새로이 '벤자민'이라는 별칭을 스스로 내세웠다.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나? (투표율은 저조했으나) 사람들의 추천이 함께한 이 별칭 공모전은, 아마도 회춘 혹은 동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엿보이던 별칭 공모전이 아니었나 싶다.

-편집자 주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비슷했으며, 조금은 행복하고 조금은 지친 존재들이었던 것 같다.

많이 행복하고 많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천형인 욕망 때문이고, 이념에 대한 욕망이 물질적인 욕망에 못지않음은 적잖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었다.

민우회와 함께 한 지난 시간의 가치를 하필 '본성'이라는 척도로 재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내면에 완성된 본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자유로워지리라"는 명제를 향해 내 삶이 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우회는 일종의 도반(道伴)역할을 했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민우회와 부대끼는 게 그만큼 힘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민우회가 원수 같은 적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그러나 한계와 흠이 있다 해도 자기의 생활과 지향하는 바를 일치시키려는 민우회의 순수한 열정과 치열함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미덕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난 6년 동안은 민우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나의 삶의 폭은 훨씬 좁아졌

우리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6년을 많은 감사할 사람을 언급하면서 맺지 않는 것은 개인의 칭송보다 우리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민우회의 정신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우회 회원, 활동가, 후원자를 비롯해 모든 식구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당신들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여성운동이 나아갈 바라든가 나의 일기동안 해온 많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였다. 민우회는 과거 23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쉽 없이 일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선배가 그러했듯이 후배들이 민우회를 더 잘 만들어 갈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정에 동참할(?) 다음 대표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앞으로 민우회는 보다 활력 있고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민우회에 대한 걱정은 이제 놓아버려려 한다.

(기쁘게) 아두, 민우회! 

벤자민 ●

2005년부터 시작해

여성민우회 대표로서 6년간 재직.

‘급한 판단’보다 ‘넓은 이해’의 마음을 품고

해외를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 손에 쥐어졌다. 여성재단에서 <여성 활동가, 아시아의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사업에 지원하게 된 것. 면접을 거쳐 수차례의 지난한 워크숍을 마친 후 9월 말에 필리핀, 태국의 여성단체들을 방문하고 10월 중순 돌아왔다.

“좋았어!”라는 딱 한 마디로 소감을 전하기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마구 넘칠 정도로 보고 느낀 게 많았던 연수였다. :) 출국하는 날, 내 좁은 시각을 잣대로 필리핀과 태국의 현실을 보려하지 말라며 끊임없이 성찰했다. ‘급한 판단보다 넓은 이해’로 보내지며 마음을 다독였다. 특별히 준비했던 얇은 수첩 하나. 때마다 적어놓은 단어, 문장들 덕분에 연수기간 동안의 고민들을 한국에서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낮선 것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필리핀의 ‘ANGLADLAD(앙라드라드)’이다. 라드라드는 필리핀어로 커밍아웃이라는 뜻, 이곳은 성소수자 정당이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당이 있다니 놀랍다. 가톨릭이 국교인 필리핀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라고 폭력을 당하는 등 혐오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파티리스트 제도¹⁾에 의하면 전 지역에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자는 마닐라에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음엔 선관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앙라드라드는 전국 조직화 대응활동을 했는데 다음 선거 때가 되자 또 선관위에게 거부를 당했다. 성소수자는 생산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이유. 법적 대응 후 결국 승소는 했지만 법적 투쟁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딱 한 달. 의원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은 표를 얻진 못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제대로 선거운동을 해서 반차별법을 제정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 필리핀에서는 성소수자 반차별법 제정운동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사유를 포함한 차

1) 필리핀에는 파티리스트(party-list)라는 정치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 하원의원 중 20%는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당 의원으로 채워진다.



낮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낮설게

강선미(필) ●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회원(청춘)팀



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각 사유별로 이미 반차별법이 있다고 한다. 차별사례, 운동과정, 법제도적 측면을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다른 게 더 많이 보일 줄 알았는데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서사들이 있었던 것.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활동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때면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낯선 것인 줄 알았던 걸 쳐다보니 익숙한 것이기도 했고, 익숙한 것인가 싶더니 전혀 다른 낯선 것이었다. 이런 생각과 경험은 방문한 단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변주로 제각각 내 마음에 닿았다.

필리핀에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은 마닐라 외곽에 있는 시골마을에서였다. 마을 여성들은 ALAYKAPWA COOP라는 이름으로 공동작업장에서 코코넛잼, 과자, 허브티백을 만든다. 나는 허브티백 쪽에서 일손을 돕다가 우

리를 구경 온 마을 아이들과 실뜨기 놀이, '학교요이 땡땡'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오후에는 시골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영어를 몰랐지만 역시 중요한 건 바디랭귀지. 나를 이끈 글로리아네 집에 갔더니 그 주변에 사는 친척들이 우리를 구경하러 몰려왔다. 그 틈 속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들렸다. 알고 보니 글로리아의 남동생 둘은 전에 1년간 한국에서 일을 했단다. 다시 갈 생각은 없느냐 물었더니 굳어진 표정뿐.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했고 한편으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취졌을지 생각이 많아졌다.



태국에서는 CAW라는 노동단체가 인상적이었다. 민우회 활동가라고 인사를 했더니 민우회를 알고 있다. 평동시절, 당시 만났던 최명숙 선생님도 기억해주었다. 지난 해 소식도 이미 알고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주었다. 기억이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 단체는 다소 느슨하더라도 일종의 조직화가 꼭 필요한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가사노동 때문에 이중으로 바쁘는데 어떻게 조직화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주말에 보통 모임을 꾸린다고 한다. 한국의 식당여성노동자는 주말도 없이 한 달에 한번 쉬기도 어려운데... 주말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행의 참 맛이란

필리핀과 태국에 있어도 앓으나 서나 한국 생각뿐. 당연한 것인가. 여행이란 돌아갈 곳이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던가. 연수기간동안 더 열심히 보고자 한 이유는 역시 민우회로 돌아가 내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면이 부족한 건 앞으로 조금 조금씩 오래오래 동안 연수 이야기 꾸러미를 펼치려는 의미로 생각해두어야겠다. **업**

플 ● 코에 바람들어가기 좋습니다.

연수 다녀온 이야기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단, 밤 새야할지도 몰라요! **D**

매일, 낮선 길 위에 서다

봉달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6시 퇴근시간, 밖은 이미 칙칙같이 어둡다. 독일은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가 크게 달라진다. 여름에는 밤 11시까지도 환하더니 지금은 4시가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수많은 다른 것들, 난 그런 '낮썰' 들에 적응해 가는 중이다. 집까지는 걸어서 25분, 자전거가 없는 난 걸어 다닌다.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한국 슈퍼에 들렀다. 김치와 두부를 사면서 난 갑자기 너무 행복해진다. 슈퍼 아주마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단 소릴 했더니 덤석 김밥 하나를 공짜로 주신다.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이곳에서 난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이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금방 마음이 환해지는 키 작은 동양인. 한국에서 난 가난했지만 '외국인'은 아니었다. 모든 게 익숙했고 편했고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난 '다르다는 것', 그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매순간 느낀다.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난 어디에서건 무시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무시당해도 알 도리가 없다는 거다. 시청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곤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도 했다. 내가 살 방 한 칸 얻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내게 오면 힘든 고생이 되어 버린다.

민우회를 그만두면서 시작된 낮선 고생들. 민우회 6년차가 되었을 때 나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독하게 민우회를 그만뒀다. 더 이상 내가 맡은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없어졌을 때, 6년차 선배로서 후배들과 즐겁게 일할 자신이 사라졌을 때, 매일의 일상이 너무 힘겹다고 느껴졌을 때, 난 민우회를 떠나야 할 때임을 알았다. 그로부터 나는 뒤늦은 영어 공부를 하느라,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느라,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아가느라 생전 해본 적이 없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나는 자신의 언어를 갖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배웠다. 나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언어. 코스타리카라는 먼 나라에 가서 젠더와 평화에 관해 공부하면서 느낀 답답함은 나를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수업은 토론식이었고, 매



유피스 메리 킹 교수님과 같은 과 친구들

일 읽고 써야 할 분량도 만만치 않았다. 영어로 써본 글이라곤 한 페이지짜리 학원용 에세이가 다였던 내게, 논리적인 주장이 담기는 리포트를 쓰는 게 쉬울 리 없었다. 컴퓨터 자판 앞에서 언어에 갇혀버린 생각에 절망하기를 수십 번, 밤새기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그 과정들을 견뎌냈다. 마치 고된 수행을 하듯이.

결국 9개월 동안 나를 버티게 해 준 것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격려였다, 고 지금이야 깨닫는다.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사회운동을 시작하셨던 메리 킹 교수님, 유엔의 가부장성에 대해 토로하며 한국 여성운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던 나딘 교수님. 내가 언어 때문에 머뭇거릴 때마다 말이 아니라 생각과 경험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나이가 들에도 여전히 그들의 열정과 활동은 내가 닮고 싶은 선배 활동가로 내 맘속에 살아 있다.

때로 삶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모든 과정을 잘 끝내고 논문을 쓸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환경단체 인턴에 지원하게 된 것도 그렇다. 과 친구가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다기에 국제단체에서 일해 본 경력이 없는 내게 딱 맞는 자리라고 여겼다. 한국에서 열릴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딱히 자신은 없었지만 지원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내게 기회가 왔다. 민우회 경력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나는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고, 앞으로 1년간 더 머무를 예정이다.

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 잘 안다. 학교에서도 난 내가 영어를 가장 못하는 학생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덕에 자주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지도 했지만, 내게 온 기회들의 소중함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잘하고 싶다는 오기도 키울 수 있었다. 신기한 것은, 힘든 고생을 끝내면 결국 가고 싶었던 길 위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다. 우연들은 내게 와 긍정적으로 작



인천에서 열린 ICDI 세계환경회의의 행사장-가운데가 봉달

용하곤 했다. 난 여전히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전화 올 때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그 뒤에 올 새로운 길에 대한 궁금증이 내겐 힘이 된다.

민우회 송년회 때마다,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이라 소원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이 소원을 난 이룬 셈이다. 그렇다고 사는 게 마냥 즐겁지 만은 않다. 삼십대 후반의 나이에, 인턴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가진 것도 없고 학비 때문에 진 빚도 있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 점점 믿는 구석도 생긴다. 가장 영어 못했던 학생을 독일에서 일하게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힘에 대한 믿음 말이다. 나는 남달처럼 멋지고 편한 삶을 꿈꾸지는 않는다. 그저 내 삶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나처럼 가장 낮은 존재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조금의 역량만 있었으면 한다. 내 소원도 늘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낯선 길 위에 선다. 

봉달 ●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독일 본(Bonn)에 있습니다. 민우회 사람들과 함께 한 모든 것들이 그립습니다. 엠티도 가고 소풍도 가고 세미나도 하는 그 익숙한 풍경과 수다들이 그립습니다. 독일에 오면 놀러오세요.



올해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컸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배춧값 폭등에 따른 1차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올해 '채소 대란'을 겪으면서 채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생협 방식이 새삼스레 주목을 받았다. '비시장적 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생협에 주류 신문과 방송이 관심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반가웠다. 그렇지만, 시장가격의 논리에서 '생협 제품의 가격이 싸다'는 식으로만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운동상 상금으로 시작한 **암소수내사업** 먹을거리 '공동 생산자' 생협 조합원

박제선 ● 여성민우회생협 홍보편집

'생산하는 소비자', 생협 조합원

어쨌든 올해 채소 대란 사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한 생협의 활동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동안 생협은 '계약생산·계약소비',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앤 '직거래' 방식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공동구입 사업을 벌여왔다. 생협의 공동구입 사업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생협은 조합원을 넓은 의미에서 '공동 생산자(co-producer)', '생산하는 소비자'로 바라보고 있다. 생협 조합원은 그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을 협동 소비해 왔다. 단순히 상품과 돈만 오가는 상거래를 지양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에 바탕을 둔 협동으로 만드는 대안 경제를 지향해 왔다.

적극적인 공동 생산, 암소수내사업

올해 여성민우회생협은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협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한 사업을 시작했다. 바로 '암소수내사업'이다. 여성민우회생협은 지난 2009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으며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여성민우회생협 이사회는 뜻 깊은 상금을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러 사업을 궁리하다가, 여성민우회생협의 20년 생산지이면서 지역순환농업을 하는 홍성 풀무생협과 암소수내사업을 시작하는 종자돈으로 쓰기로 했다.

그렇지만, 상금 300만 원은 암송아지 한 마리 살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암소수내사업 기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암소수내사업 기금 모금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2,840만 원을 모금했다. 여기에 상금 300만 원을 더해 모두 3,140만 원으로 한우 암송아지 12마리를 구입해 흥성풀 무생협 생산자 조합원, 여성생산자회 회원 등 12 농가에 분양했다.

생산자 소득 증대, 안전한 쇠고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대

송아지를 분양받은 생산자들은 Non-GMO 사료와 흥성 지역 유기농업 부산물을 먹이며 송아지를 길러야 한다. 또 축분은 퇴비로 만들어 지역 유기농업에 투입해 지역순환 농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첫배로 태어난 송아지는 무조건 무상으로 다른 농가에 분양을 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2 번째 태어나는 송아지부터는 생산농가에서 사육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게 했다.

또한, 건강한 송아지를 들여다 키우고 잘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성민우회생협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생협 소가 1,000마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Non-GMO 사료를 먹고 광우병 전수검사를 마쳐 공급하는 건강한 쇠고기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내'는 남의 가족을 길러 가족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농민을 위해 공동체에서 돈을 모아 송아지를 분양해주고, 분양받은 농민이 송아지를 키우고 그 결과물을 농민과 공동체가 나누었다. 즉 농민이 송아지를 키워 팔면 송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해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때 처음 분양하는 소를 '수내 소'라고 한다. 수내는 지역에 따라 '배내'나 '수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지난 10월 9일 충남 흥성 온곡마을에서 열린 여성민우회생협 행복지역과 충남 흥성 온곡마을 암소수내사업 협약식.

식량 생산에서 소비자도 책임감을 느껴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렇지만 혹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책임을 생산자에게만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채소대란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농업과 식량 생산의 문제는 생산자 농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에 운명을 맡길 수도, 정부 정책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협 조합원,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민우회생협이 시작한 암소수내사업이 책임감 있는 소비자 운동의 작은 물꼬를 틀 것이라고 감히 자신해 본다. **박**

박제선 ●

집에서 맥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배출할 때 내다 놓는 맥주 캔만 한 상자^^;



심용선 ●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지역의 아동안전망을 다시본다

경찰산하 아동안전망을 보니.

2009년 초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상담원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줌마 서포터즈라는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교육생들에게서 당시 안양의 혜진이 예술이 사건 이후 급 조성된 경찰산하 아동안전망인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어머니 플러스’ 등의 활동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줌마 서포터즈(이하 줌마)들은 설문지를 구성한 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특유의 ‘아줌마’ 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친근하게 접근해서 일상적인 얘기도 늘어놓고 주변상황도 물어보는 등 누가 보면 수다를 떠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했고, 교통비도 안주는 완전 자원봉사였어도 정말 열심히들 했다.

아동안전지킴이가 할아버지들이었어?

설문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이 많았는데, 군포관내 아동지킴이가 총 10명밖에 안되더라.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이더라.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총 59개소였는데 경찰로부터 간단한 소양교육 외에는 받은 적이 없고 지킴이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이 많더라.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사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존재자체를 거의 모르더라 등.

설문조사 후에 줌마들은 그래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하 지킴이집)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있고 슈퍼, 문구, 약국 등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서 지킴이집으로 활동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아동범죄 예방에 탁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더구나 ‘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아동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업주들이 꽤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업주들의 신원이 확실해야하며 아동성폭력 등 좀 더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내가 곧 아동지킴이라는 생각은

또한 그런 눈으로 아동들을 본다면 지역의 아동범죄율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집 교육(의왕우체국)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당연한 범죄 심리 관련 얘기이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경찰산하의 아동안전망들은 올해 2010년도만 해도 '아동안전수호천사'로 우편배달부, 야쿠르트 여사가, '아동안전보호관'으로 통장들이 위촉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다양한 아동안전망들이 우후죽순 생긴다. 라는 생각과 함께 기왕 생긴 것인데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도 걱정이 되었다.

다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하고

2010년도에 들어서서 줌마들은 지킴이집을 순회 교육하였다. 아동유괴와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지킴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킴이집의 주인들은 모두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이었다. 방문 예약도 쉽지 않았고 상담소에 대한 기대치도 낮았다.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줌마들은 30분 교육을 목표로 강의안을 구성하고 업주와 교육자로 상황을 설정해서 실제 교육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하였다. 제일 잘하는 팀을 동영상으로 찍어 각자 USB에 저장해서 연습을 하였다. 2인 1조가 되어 군포, 의왕, 안양지역 열악한 곳에 있는 지킴이집을 방문 교육하였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아동안전망

많은 시. 도에서 '아동.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결연형식의 행사 사업 위주이다.

줌마들인 지킴이집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구축된 안전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다양한 안전망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킴이집 순회교육을 통해 줌마들은 말한다. 지킴이집이 좀 더 눈에 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킴이집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 오히려 관심이 안 간다. 업주 중에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곳도 있어 철회할 필요가 있다. 태풍에 날아간 스탠드로그를 빨리 보충해야한다. 등등...

이런 의견들을 모아모아 담당 부서 및 경찰서에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의 아동 관련자들이 아동안전망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그런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2011년을 시작할 예정이다. **▶**

심용선 ●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으로

아동안전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여소 서평문학상 알림 - 회원모임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에서는 지난 8월 30일 ~10월 29일까지 2009년과 2010년에 세여소가 읽은 도서목록 중 한 권에 대한 자유서평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언니네트워크의 『언니들 집을 나가다』에 대한 서평을 써준 배범호(나무, 본부 회원) 님이 대상(상금5만원)으로 선정되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집에서 나갈 공리하기

나무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다. 부모님이 집을 사기 전까지 꽤 많은 이사를 다녔었고, 가계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서 온 가족이 살기도 했었지만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아직도 그렇게 부모님과 살고 있다. 작은 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던 어린 시절에도, 내 방이 생겼던 스무 살 즈음부터도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이년 동안에도 내가 가장 편하게 설 수 있는 곳은 휴가 때만 갈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었고, 지금도 내가 많은 부분들을 기대고 있는 곳은 가족들이 있는 집이다. 가족들과 함께 집을 공유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무 살이 넘으면서 인식되었던 많은 불편함도 집에 머물러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편안함보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를 지나고서, 조금은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하고도 나는 적극적으로 집에서 나갈 공리를 해보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용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집밖으로 나가면 응당 책임져야 할 집세, 식비, 각종 공과금들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집을 나가고 싶게 만드는 불편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남아있어야 할 감정적

인 이유와 핑계는 늘 존재하고 있다. 아버지와 심한 의견 대립의 끝으로 집을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어찌되었던 집에 남아서 해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였고, 할머니를 모시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혹은 심화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에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물론 지금도 그때의 결정들이 잘못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결정이었던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몇 달 전, 드디어 나는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언니들 집을 나가다』라는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각자의 다양한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밥과 몇 가지 음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세탁기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빨아 방바닥을 닦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을 하면서 내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어머니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여성주의를 접하면서, 혹은 그 전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때까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안일들을 나에게서 유보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의 상황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언니들>이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나의 삶의 모양새는 이러하다. 내가 먹을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내가 입을 옷

들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사는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내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온전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내 이성을 배부르게 하고, 감정의 성찰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나의 삶을 튼튼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통칭해서 <집안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일과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살림>의 하나하나를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시간과 빈둥댈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버거워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림>을 해보지 않은 나에게도 당연한 일일 테니, 그만큼의 시간을 나에게 확보해 줄 것이다. <살림>은 귀찮은 일이고 재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이고, <살림>을 위한 모든 일들이 내 생활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삶을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 삶의 모양새를 다시 그려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드러내어준 많은 <언니들>처럼 나 또한 내가 그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 보려고 한다. **▶**

나무 ●

아마도 1년 후에는 나만의 살림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민우회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2010년 상반기 신입회원 여성주의 세미나
(달콤 쌉싸름한 여행, 환절기)을 함께한
회원들입니다. 신입회원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은
여성주의, 사회적 소수자, 노동법,
성폭력 등을 주제로 총 5회
(9월 7일~ 10월 19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신입회원께 물었습니다~😊

- ① 이름 혹은 별칭은?(별칭의 이유)
- ②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은?(재능, 물품, 기타)
- ③ 민우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 혹은 동기?
- ④ 내가 느낀 신입회원 세미나 모임을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 ⑤ 민우회를 5자(다섯자)로 표현한다면?

하토르

① 하토르(hathor): 이집트신화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에서 따왔습니다. ② 돈과 단순 노동력;; 딱히 재능이랄 건 마땅찮아서- ③ 낙태죄 관련 기사를 보고, 무한히 분노했었음. ④ 상냥한. 모두들 친절하셨습니다(^) ⑤ 알고싶은곳.

릴

① 릴: 독일 시인 RILKE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릴' ② 후원, 물품, 노동력, 마음. (재능은 주고 싶어도 특별한건 없네요. 단순 노동만이 살길!) 사실 말로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제가 정말로 어느 범위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최근 이슈화 된 '낙태법'을 통해 정부가 어떤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길을 몰라 우왕좌왕 하던 차에 하토르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④ 소록소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쌓이는 시간.(이건 형용사가 아닌 명사 표현인가요?) 그럼 소록소록, 사박사박, 너울너울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던, 따뜻한... ⑤ 마음포근한

혜음

① 혜음: '혜음'이 '생각'의 옛 말인데,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 ② 기본적인 컴퓨터 관리(?)-_-; ③ 성폭력 기해자 상담원 교육 중 너굴, 오이 등의 권유로? 민우회 분위기가 편하고 좋았음. ④ 신선한(만남) ⑤ 따뜻, 편안, 人



고양여성민우회

여성주의학교 D● Dream~! 두드림!!

“내 마음을 두드리다, 기존의 신화를 두드려 깨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다!!”

6강 12/3 : 섹슈얼리티 2 (뽀딱하게...)

/안선희

7강 12/10 : 여성주의 마음읽기 1 /박주경

8강 12/17 : 여성주의 마음읽기 2 /박주경

• 일시 : 10월 29일~12월 17일 매주 (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좋은 길, 작은 길, 고양을 걷다' 고양올레

• 코스 : 관산동 필리핀참전비 - 소현세자

후손들 무덤 - 최영장군묘 - 대자산 정상

- 고양향교/중남미문화원 - 벽제관지 -

산촌비빔국수 - 사신길 - 선유동 신수영

묘 - 귀성군 이준묘 - 선유동 능선길 -

늘봄농원 - 용복원 - 필리핀참전비

• 소요시간 : 3시간~3시간 30분

• 준비물 : 간단한 간식과 물

• 참가비 : 3,000원

• 일시 :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관산동 필리핀참전비(주차가능)

고양여성민우회 송년회 '나 이런 사람이야 ~~)'

• 드레스코드- 나 이런 사람이야~~(내 맘대로, 내 식으로)

• 프로그램 : 단위별 장기자랑, 회원 장기자

랑/ 1분 락카페/ 이런 행은 처음이야/ 촛불잔치

• 일시 : 12월 2일 (목), 오후 6시~9시

• 장소 : 유디콕(벚엘교회옆 031-919-5552)

풍물패 함께누리 회원모집

설장구 모임, 신입회원반, 정회원모임, 초등부, 중등부, 지역아동센터 꿈틀이 등 다양하게 함께할 수 있는 함께누리 회원을 모집.

• 일시 및 장소 : 모임별 시간 및 장소 확인 바람

광주여성민우회

다솜누리 문화체험

함께 모여 감상하기

• 일시 : 11월 27일 (토)

• 장소 : 영광 여민동락

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연극 및 민우데이 송년회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갖기 연극공연 및 식사

• 일시 : 12월 4일 (토)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솜누리 성캠프

성적 의사소통과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캠프

• 일시 : 12월 11일 (토)

• 장소 : 너나들이

여성 리더십 과정 - 세상의 중심은 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성의 자기긍정성 회복하기, 내 인생의 사명선언서 쓰기

• 일시 : 12월 3, 10, 17일 매주 (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시청자미디어센터

군포여성민우회

민주여성학교 '도보여행가 황안나' 초청 강연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

• 일시 : 11월 17일 (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군포여성회관

아동안전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

• 일시 : 12월 2일 (목) 오후 2시~4시

• 장소 : 군포여성회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발대식

지역 내 연대활동으로 구성된 양천넷 발대

• 일시 : 12월 1일 (수)

• 장소 : 양급양천생협

반딧불세미나

여성주의를 배운다

• 일시 : 12월 중 2회 실시

• 장소 : 미정

남서여성민우회 송년회

회원들과 함께 2010년을 돌아보며 친목 도모하기

• 일시 : 12월 셋째 주 예정

• 장소 : 미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달맞이와 함께 보는 여성영화(땅의 여자)

농사를 짓고, 여성 농민회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 여성으로서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3명의 여성들의 이야기

• 일시 :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동북여성민우회 송년회

한 해의 마무리는 동북여성민우회에서 함께

• 일시 : 12월 16일 (목), 오후 7시(변경가능)

• 장소 : 미정

원주여성민우회

신입회원 교육

어떻게 민우회 회원이 되셨는지, 민우회는 00다,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 일시 : 11월 17일 (수), 오전 10시30분

/ 오후 7시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실

여성들의 욕구조사

원주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분석
 • 일시 : 11월~12월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사업

원주여성민우회 재정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 일시 : 12월 초
 • 장소 : 미정

인천여성민우회

책 만드는 미술 카페

미술작업을 통한 내면의 경험과 자기의 힘 발견하기
 • 일시 : 11월 2일~12월 7일, 매주 (화) 오후 7시30~9시 30분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한자강사양성과정

한자 3,4급 자격취득 및 한자강사양성교육
 • 일시 : 오전 10시~12시, 매주 (금)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풍물 강습

사물놀이 기초부터 함께하는 풍물강습

- 일시 : 오후 7시~9시, 매주 (수)
- 장소 : 부평구 십정동 풍물 공간 '더듬'

인천여성민우회 송년회

- 일시 : 12월 10일 (금), 오후 7시 30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4층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바로알기 캠페인

성교육인형극 시연, 홍보물, 전단지 배부
 • 일시 : 11월 20일 (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신안동 주공1차아파트 앞 분수대

아들살들 번개시장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 일시 : 11월 20일 (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신안동 주공1차아파트 앞 분수대

찾아가는 아동성교육 인형극 '애들아! 안심해'

아동성교육 인형극
 • 일시 : 11월 22일~12월 10일
 • 장소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민우학교/회원만남의 날

여성주의 강의듣기

- 일시 : 11월 23일 (화)
- 장소 : 미정

여성평등상 시상

제12회 여성평등상 식과 진주인권사랑한마당
 • 일시 : 12월 10일 (금)
 • 장소 : 산업대 산학협력관

춘천여성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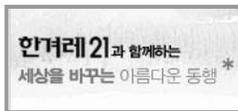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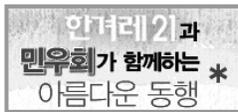
새내기 여성학

신입회원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 일시 : 11월 4일, 11일, 18일, 22일, 12월 2일
 • 장소 : 춘천여성민우회 '회원공간'

사무국 리모델링 프로젝트

[언니들이 돌아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회원공간' 이 민우회 회원을 만나기
 • 일시 : 사무국에 사람만 있다면 언제나
 • 장소 : 춘천여성민우회 사무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겨레21>이 연대하여 상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민우회로 지정하여 <한겨레21>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 구독료의 20%한도 내에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한국여성민우회에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한겨레21> 정기구독을 하고 계신 민우회 회원분들!!

구독 기간 갱신하실 때 기부 단체를 ‘한국여성민우회’로 지정하시면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우회 홈페이지(www.womenlink.or.kr)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배너를 클릭! 해 주세요.

-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정기독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 독자 마당

민우회의 주인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ee@womenlink.or.kr로 보내주세요.

신입회원 여러분 반가워요!

2010년 8월 31일 ~ 2010년 11월 초

강수정	김선희	박현희	안효임	이상임	전희경
강원희	김순실	배소영	양복인	이선화	정인호
강유화	김양희	백숙희	오지영	이영옥	정지인
강혜정	김은남	서선희	유미자	이영채	정현주
고미라	김종현	성금옥	유신애	이은경	조경숙
고희정	김주영	손유나	유용균	이재춘	조진희
곽현미	김춘분	손혜선	유재희	이지아	진영관
권은순	김희영	송인주	윤도현	이지은	최미해
기영철	나윤경	송현희	윤수희	이철호	황도미
김 숙	나중한	신수현	윤유라	이해경	황환식
김남희	남기남	심 달	이경미	이혜자	
김병훈	문미선	안나영	이동우	이호민	
김서현	박소라	안민정	이마량	임순애	
김선미	박원숙	안소진	이민아	임정애	
김선희	박정아	안신영	이빛나	임창호	

평생회원, 회비인상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31일 ~ 11월 초

평생회원 문승숙
 회비인상 김미숙 백미록 엄현주 이소희 조성아

한국여성민우회 3/4분기 결산보고서

(2010년1월1일 ~ 9월30까지)

(단위 : 원)

I. 수입내역		금액
회비수입		168,689,000
후원금		184,405,047
사업수입		10,650,790
기타수입		51,576,468
수입합계		415,321,305
II. 지출내역		금액
인건비		166,380,266
복리후생비		2,587,779
사무용품비		1,553,960
사무행정잡비		2,447,850
사회보험금비		12,613,947
소모품비		1,607,670
연대활동비		3,769,000
제세공과금		2,908,180
지급수수료		2,287,640
지급이자		14,178,797
통신비		4,528,555
회의비		585,490
나루운영비		2,961,188
정보홍보사업비		34,172,214
조직활동비		18,657,280
정책연구교육사업		14,011,138
재정사업비		63,162,990
지출합계		348,413,944
III. 당기수지차		66,907,361

* 2009년부터 분기별로 〈함께가는 여성〉과 민우회 홈페이지에 결산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공지 기획기사와 [새로운 페이지]쪽지는 200호 특집으로 한 호 쉽니다.

①					②		④		
			⑦						⑥
							⑤		
					③				

객 관 식

가로 풀이

- ① 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의 목적을 정관 제 3조를 통해 밝히고 있지요. 민우회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②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두 명의 활동가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별로 이쁜 이름도 아닌데 신기하기도 하지요. 이 둘의 별칭은 '너굴'과 '썸'입니다.
-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죠. 민우회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회원단체로서 매년 2~3회씩 이것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 ⑤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엔 꼭 필요한 이것! 2006년에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캠페인. ○○○○를 바꾸자!
- ⑦ 이번 돌아올 2011년 정기총회는 몇 차 총회일까요?

세로 풀이

- ① 민우회가 하는 여성운동의 기본 방향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죠! 함께하는 여성운동, ○○○○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
- ② 민우회 본부는 마포구 성산동 ○○○-○○ 나루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ㅊㅊ 요 녀석을 다시로 읽어야 총 6음절이 됩니다. 뒤에 ○○을 1음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 ④ 여성들을 많이 벗긴 채 일렬로 줄 세워놓고 점수 매기고 상도 주는 그런 행사를 공중파에서 중계하는 게 웬 말이나며 펼쳤던 운동이죠. 결국 민우회가 공중파에서 없애버린 그 행사. ○○○○ 방송중계 반대운동.
- ⑥ 민우회가 입주해있는 '나루' 1층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고소한 향기가 건물에 퍼져 나루활동가들을 행복하게 하죠. 전설의 바리스타들이 있는 곳. 그 곳의 이름은?

※ 가로세로 열쇠풀기 퀴즈 7문항, 그냥 4지선다형 퀴즈 5문항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가장 재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券(5,000원)과 함여구독회원(1년)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선착순 5명(1등 제외)에게는 함여구독회원(1년)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 다음 중 정관에 의하면, 본회의 목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직업능력 개발사업
- ②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 ③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 ④ 평화 통일사업
- ⑤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⑥ 4대강 개발사업

2. 200호를 맞이한 민우회의 얼굴, 조금만 발행일이 늦어져도 궁극해 못 참는다는 바로 그 잡지!

- ① 함께하는 여성 ② 함께가는 여성
- ③ 먼저가는 여성 ④ 뒤로가는 여성

3. 민우회는 2011년 1월 22일(토)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아닌 것은?

- ① 정관 개정 ② 임원 선거
- ③ 예산 심의 확정 ④ 상근활동가 이름 변경

(‘함께가는 여성’ 200호를 읽고 풀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만든 웹툰의 제목은?

- ① 곤동성생활백서 ②상냥한성생활백서
- ③ 명랑성생활백서 ④침울한성생활백서

5. 올해 서평문학상을 시상한 회원모임의 이름은?

- ①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 ② 세계로 갈래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 ③ 세계로 가는 여자들의 소설읽기 모임
- ④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스찾기 모임

‘참 재밌는 총회’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민우회가 펼쳐온 신나는 활동들을 많은 회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인사하러, 아직은 낯선 2011년 1월 22일에 만납시다.

“민우회 총회는 참 재미있다.
이 아기사기함이란,
활동가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노력의 결정체란 걸 안다.
웬시 힘들었을 텐데도
총회는 축제처럼 흥겹고, 분산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한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민우회라는 큰 나무에 물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열매를 함께 따먹으며 즐거워한다.
서로를 토닥인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주보고 웃는다.
함께여서 좋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다.”
-꽃마의 2008년 1월 28일 총회 후기

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2011.1.22 SAT 1:30PM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회의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정기총회 안건

2010년 사업평가(안) 및 2011 사업계획(안) 승인/
임원선거/정관개정/회원상 시상 등

※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와 우편발송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0호 맞이 구독회원 모집



어느덧 200호.

“내가 좋아하는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함여를 선물하고 싶어. 인사해. 민우회소식지 함여야!?”

- 신청 및 이야기를 보내주실 곳
minwoo@womenlink.or.kr 02.737.5763
- 1년 구독권 30,000원
계좌이체 813-25-0011-869 국민은행 (사)한국여성민우회

회원님들의 광고를 받습니다



아, 물론 기업이나 단체의 광고도 받습니다~!

〈함여가 여성〉이 격월로 발간되는지라 긴급한(?) 광고는 불가할지라도 소소하지만 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전하고 싶은 광고를 받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행사, 가내수공업의 완성품 판매(?), 나누고 싶은 말말말!, 자랑하고 싶은 개인광고 등의 내용으로 〈함여가 여성〉의 광고란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문의 02-737-5763 팩스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상담 02-335-1858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개포매장 02-445-8703 반포매장 02-537-8703 잠실매장 02-417-870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생협 사무실 02-2643-5016 신청매장 02-2643-6060 목동매장 02-2643-6077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사무실 02-3492-7140 방학매장 02-3492-9999

중계매장 02-934-7999 창동매장 02-900-9958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상담 031-919-1366 생협 사무실 031-918-9774

주엽매장 031-919-1774 마두매장 031-902-3774 덕양매장 031-938-9774 후곡매장 031-919-9854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상담 055-746-7462 생협 사무실 055-746-7925 평거매장 055-746-7077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e@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